

□ 성공적인 귀농의 길잡이

▷ 은퇴 후 귀농까지의 코스

1단계 : 정보와 기초지식 수집

- 농업시작을 위한 정보 수집과 귀농상담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 등의 상담창구를 방문한다. 또는 이런 창구가 개설되어 있는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모은다.

2단계 : 영농교육 사전이수 · 영농체험 · 현장견학

- 농업을 체험하거나, 농업 기초지식을 몸에 익힌다.

3단계 : 목표하는 농업을 명확화

- 어떤 작물을 재배할지. 작물을 생각해 본다.
- 선정된 농작물의 영농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.
- 내가 할 수 있는 농작업에 대해 생각해 본다.
- 선택작목과 생활조건 등을 참고하여 귀농후보지를 검토한다.
- 할 수 있는 한 현지를 방문하고, 직접 농지 · 주택 · 연수기관 · 농업 및 농촌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.

4단계 : 기술과 노하우 습득

- 목표하는 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몸에 익힌다.

5단계 : 자금확보

- 목표하는 농업에 필요한 자금과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의 생활자금을 융자할 기능성도 포함하여 검토한 후 확보한다.

6단계 : 농지 · 주택확보

- 가능한 농지와 영농에 적합한 주택을 확보한다.

7단계 : 기계와 시설확보

- 영농규모에 맞추어 필요한 기계나 시설을 확보한다.

8단계 : 영농계획작성

- 생산계획, 판매계획, 자금계획을 명확히 한다.

9단계 : 농지취득

- 귀농할 지역에서 농지취득(대차를 포함) 수속을 밟고, 농지법의 허가를 받는다.

10단계 : 귀농

- 자신의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한다.

▷ 성공적인 귀농전략

- 귀농하고자 한다면, 지금 당장 텃밭농사 - 주말농사를 시작하라.
- 준비 기간 동안 귀농교육을 받고, 내가 원하는 정보를 모으라.
 - 정부부터 귀농교육훈련 과정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에 참여하여 많은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얻게 된다.
- 철학적 고민, 시대와 호흡하는 정신적인 무장이 중요하다.
 - 귀농은 단순 직업전환 뿐 아니라 삶과 생활을 변하는 것이므로 귀농을 해도 행복할 것인지 나의 준비된 철학, 단단한 가치관이 필요하다.
- 귀농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라.
 - 한탕으로 되는 농사는 없다.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라.
- 농촌에는 농사꾼만 있는 것이 아니다. 농촌에서 직업을 이어가라.
- 지역 관공서나 기관 및 조직을 적극 활용하라
- 귀농지 선정은 연고지나 인맥을 적극 활용하고 인내하라
- 성공적인 귀농의 최후 비결
 - 마을사람이 되는 것, 마을사람으로 인정받는 것

□ 나에게 맞는 귀농유형 선택하기(어디로 갈 것인가)

▷ 전원형 실버농업테마타운 모델

- 도시은퇴자들이 은퇴한 고령농업인과 더불어 전원생활을 향유하며 텃밭에서 일을 즐기고 성취감을 맛보는 취미농업
 - 300평 이내 대지에 주택 및 텃밭(온실, 재배사 등)
 - 잔디, 꽃, 야생화, 정원수, 분재, 채소, 산나물 등
 - 은퇴자 투자규모 : 1-2억원(대지, 주택, 온실, 재배사, 공동시설)
 - 주소소득원 : 연금 및 자산소득, 본업소득
 - 보충 가능한 농업소득원 : 느타리버섯, 양봉, 팜스테이
 - 고객 : 경제적 여유가 있는 50-60대 도시은퇴자, 은퇴고령농업인
- 단지규모 : 20-50호
 - 부지 : 9-21천평, 도로 25%, 공동시설(소공원, 마을회관)5%, 개별택지(분양)70%
- 적용지역 : 인구 5만 이하의 군지역, 공기·물·경치가 좋은 청정지역
- 사업시행방안
 - 단지 기반시설은 정부부담(20억원)
 - 대지분양, 주택 및 부대시설은 입주자가 발주 시공
- 은퇴자 메리트 : 전원생활과 취미농업으로 성취의욕, 건강, 지가상승
- 농촌의 메리트 : 농촌인구증가, 도시자본 투자, 도농교류증가, 고용창출

▷ 도시근교 은퇴마을 농업모델

- 도시 은퇴자들이 대도시와 멀지 않은 농촌에서 정원을 가꾸고 전원생활을 향유하며 건강을 추구하는 여가농업
 - 200평 이내 대지에 주택 및 정원 또는 다가구 주택생활과 10평 내외의 원예포
 - 잔디, 꽃, 야생화, 정원수, 분재, 채소, 산나물 등
 - 고객 : 경제적인 여유있는 50대 이상 도시은퇴자, 농촌재택종사자 등
 - 주소득원 : 연금 및 자산소득, 본업소득
 - 투자규모 : 2-5억원(대지, 주택, 공동시설)
- 단지규모 : 100호 이상
 - 장기적으로 노인의료서비스 체계 중심지역으로 발전
- 적용지역 : 인구 백만 이상 대도시 근교, 공기 · 물 · 경치 좋은 농촌지역
- 사업시행방안
 - 시장수요에 따라 민간주도 계획 및 시행
- 은퇴자 메리트 : 낮은 생활비, 전원생활과 일을 통한 건강유지
- 농촌의 메리트 : 인구증가, 도시자본 투자, 도농교류확대, 노인복지 서비스 확충

▷ 주말농장 모델

- 도시은퇴자가 주말 또는 일주일에 3-4일 정도 농장에서 (손)자녀와 더불어 농작물을 가꾸고 일을 즐기는 취미 · 여가농업
 - 300평 이내 농지에 소규모(임시)주택, 6-15평
 - 자가 소비용 채소, 산나물, 고구마 등
 - 은퇴자 투자규모 : 100만원/년(임대료, 농자재비), 5천만원(농지구입, 주택, 농자재비)
- 주말농장 임대 : 농가, 농협, 영농법인
 - 수익모델 : 농지임대, 숙식제공 서비스, 농사관리 서비스
 - 정부지원 : 경지규모 확대 및 서비스, 시설비 용자지원(5억)
- 별장형 주말농장
 - 도시은퇴자가 농장구매, 주택마련, 농업활동
- 은퇴자 메리트 : 농사일 즐거움, 안전농산물, 가족여가활동, 자연친화학습
- 농촌의 메리트 : 도시자본 투자, 도농교류 확대

=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‘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위한 매뉴얼’ 발췌 참조 =